

전주서 만든 드론축구볼, 세계무대 첫선

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 서 '스카이킥-에보' 론칭쇼 개최... 미국·캐나다와 5만대 수출 계약 체결

전주에서 개발하고 제작된 드론축구볼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를 통해 세계무대에 첫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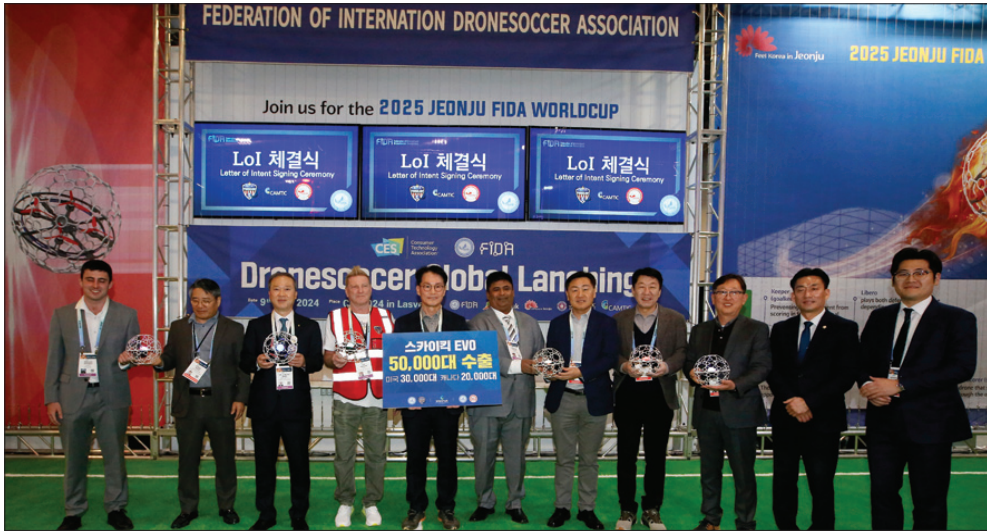
특히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이 드론축구볼은 미국과 캐나다로만 5만대가 수출될 예정이어서 드론축구 세계화는 물론, 강간경제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길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Tech West 전시관 Venetian Expo에서 유소년 드론축구부인 '스카이킥-에보'의 신제품 론칭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노상훈 캠퍼스융합기술원장,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국 대표, 드론축구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출시를 축하했다.

신제품 소개 영상으로 문을 연 론칭쇼는 막에 가려진 유소년 드론축구볼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며, 뒤이어 제작식을 통해 처음 모습을 선보인 '스카이킥-에보'는 참석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멋진 위용을 뽐냈다.

이날 세계무대에 첫선을 보인 '스카이킥-에보'는 디자인은 물론 기능 면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다



전주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에서 신제품 유소년 드론축구볼 '스카이킥-에보' 론칭쇼를 개최했으며, '스카이킥-에보' 개발사인 캠퍼스융합기술원은 미국·캐나다와 5만 대(총 69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는 평가다. 더 큰 충격을 전달 수 있는 탄성 탄소소재 가드를 장착했으며, 자율주행 및 삼각자용 터보 기능 등을 탑재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해냈다.

무엇보다 '스카이킥-에보'가 더욱 주목받는 것은 개발은 물론, 모든 생산 공정이 전주에서 제작된 명실상부한 'Made in 전주'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스

카이킥-에보' 개발사인 캠퍼스융합기술원은 이날 미국·캐나다와 5만 대(총 69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노대 기업에서 생산한 드론축구볼이 권위 있는 박람회장에서 돌보일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드론축구가 2024 CES 선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갈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드론축구볼 론칭쇼를 열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전주의 우수한 드론 활용 기술을 알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스포츠로, 스포츠를 넘어 산업으로 성장 중인 드론축구와 함께 강한 경제전주의 대변혁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10일 비전대학교에서 올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2024년 백만천사 1호' 탄생

비전대 외국인 학생들,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42만원 기부

전주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고액을 기부한 '2024년 백만천사 1호'가 탄생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사장 윤방섭)은 10일 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에서 올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현재 비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6급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원들이 142만36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들은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전주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리우 학생(미얀마 출신)은 이날 "전주사랑이 우릴 따뜻하게 반겨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따뜻함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백만천사의 첫 시작을 열어준 비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학생들과 교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 해주신 성금은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하는 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청년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돕는다

전주시,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접수한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84~2006년 출생자),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1974~2006년 출생자)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에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청년후계농 또는 후계농으로 선정되

면 최대 5억 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에 용자로 지원된다. 정책자금 대출은 연리 1.5%로,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청년후계농 선정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이 매월 지급된다.

시는 서면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장은 "영농에 꿈을 가진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동아블랙벨트태권도, 라면 50상자 기부

전주시 인후동 소재 동아블랙벨트태권도(관장 양석철)는 10일 새해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50상자(100만원 상당)를 인후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라면은 태권도장 관원생 60여명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인

후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석철 관장은 "관원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정성을 모아 마련한 라면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1회용품 줄이기 함께해요"

전주시,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재활용품 선별별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가 7월 시행 예정인 만큼, 시민실명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시민들의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교육은 물론, 자발적 감량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 60여 명의 시민활동가와 시민강사를 양성해 이들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경로당 등 110개 기관 6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41대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20개소 공동주택에 총 100개의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고부가가치품목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